

전남대병원 노조 결국 파업...의료공백 우려

메르스 비상 속 호남대표 국립대병원 대처 능력 부재 지적 환자들 불편 호소...조선대병원 교섭 끝 파업 철회와 대조

광주·전남을 대표하는 지역거점의료기관 전남대학교병원 노조가 12일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의료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3년 만에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서 국가재난급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혼란이 불가피한 파업이 발생함에 따라 국립대병원 경영진의 협상력과 중재능력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남대 병원은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 환자 등에 대한 격리입원 치료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에서 설치와 운영을 지원한 국가 지정 입원치료병상을 보유한 핵심 의료기관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같은날 총 파업을 예고한 조선대학교병원노조는 이날 사측과 오전 10시까지 이어진 교섭 끝에 파업 예고를 철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선대병원도 전남대병원과 마찬가지로 국가 지정 입원치료병상을 보유하고 있다.

12일 전남대학교 병원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소속 전남대병원지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500여명의 인력확충과 근무조건 개선 등이 포함된 사측과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이날부터 총파업에 들어갔다.



파업과 환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남대병원지부 조합원들이 12일 오전 광주시 동구 전남대병원 1층 로비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파업에 돌입했다. 한 입원 환자가 진화현장을 지나 병동으로 옮겨지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근무하는 병실에 병상 수가 5개나 늘었지만 인력은 충원 되지 않고 있다"면서 "기존 인력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 했다.

보건의료노조 전남대병원지부는 파업 첫 날 전체 조합원 1800여명 중에 응급실 등에 근무하는 500여명을 제외한 조합원들이 병원 1동 현관 앞에 모여 집회를 이어갔다.

전남대병원 노조는 중환자실, 응급실, 수술실 등 조합원은 그대로 유지하고, 일반 병동도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수 인원을 남겨뒀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진료에 차질 빚으면서 불편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목소리도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환자 심도(여·72)씨는 "머리가 아파 신경과에 예약을 하고 병원에 왔는데, 파업 때문에 약을 줄 수 없다고 하더라"며 불편을 호소했다.

전남대학교 병원 관계자는 "원활하게 타협하지 못하고 지역민에게 우려를 안겨드려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면서 "노조와 협상을 계속 추진해 파업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대병원 노조는 오는 17일까지 사측과 교섭이 타결되지 않으면 18일에는 전국보건의료노조와 함께 전국 집중 투쟁에 나서고 19일에는 민주노총 광주본부와 총력 집중투쟁을 할 예정이다.

화상 입고 숨진 생후 2개월 아기 부모 영장

"형편 어려워 연고만 발라" 경찰 "실수 아닌 방임"

화상을 입고 5일 넘게 방치됐다 숨진 아기의 20대 부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아기의 사망원인을 부모의 실수가 아닌 방임으로 보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 A(23)씨와 B(여·22)씨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 4~5일 새벽 사이 여수시 한 원룸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을 목욕시키다가 화상을 입게 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부는 화상 직후 아기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으며, 지난 10일 오전 여수의 한 종합병원을 찾았을 때 아기는 이미 숨

져 있었다.

A씨 부부는 "대아에서 아기를 목욕시키다가 실수로 화상을 입게 했다. 형편이 어려워 병원이기 부담돼 가지 못하고 집에 있던 연고를 발라줬다"고 진술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5월 서울에서 여수로 내려와 함께 살았으나 일정한 직업 없이 한쪽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원룸에서 스테로이드 성분이 포함된 피부질환 연고와 재생 연고를 발견했으며 부부가 인터넷으로 화상치료 방법 등을 검색한 정황을 확인했다. 아기에 대한 부검 결과 골절 등 다른 외상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죽은 아기의 상태가 너무 심각했고 수일 동안 방치됐었다. 실수로 일어난 사고가 아닌 방임으로 판단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희 기자 chkim@

"학폭 학생 상급학교 진학 이후에도 징계" 판결 확정

상고 포기... '리딩 판례' 될 듯

학교 폭력을 저지른 학생은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상급학교에 진학한 뒤에도 징계할 수 있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12일 대구고법과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인정돼 다니는 학교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A양과 그 부모가 법원에 '가해자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까지 패소하자 상고를 포기했다. A양의 상고 포기로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에 대해서는 상급학교에 진학하더라도 징계할 수 있다는 판결이 판례로 남게 됐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법원 판결의 기준이 되는 '리딩 판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6년 당시 대구 시내 한 중학교 3학년에게 재학하던 A양은 동급생인 B양을 놀리며 괴롭혔다. 두 사람은 좋지 않은

관계로 학교생활을 이어갔고, A양은 B양과 나는 통화 내용을 다른 친구들 단체 대화방에 올렸다. 이후 A양의 친구 몇 명이 그 대화 내용을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인 이듬해 4월께 SNS에 올렸고, A양과 친구들은 해당 게시물에 B양을 놀리는 표현의 댓글을 달아 조롱했다. 놀림과 괴롭힘이 계속되자 B양은 A양과 친구들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

학교 측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 A양이 B양을 접촉하거나 협박·보복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또 교내 봉사 10일(10시간)과 학생 특별교육 2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1시간 처분을 하라고 학교 측에 요청했다. 이에 A양과 부모는 대구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징계처분이 크게 달라지지 않자 A양 등은 "중학교 때 생긴 학교폭력 행위를 고등학교에서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고교 교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박진표 기자 lucky@연합뉴스

국내 메르스 의심환자 10명 음성 판정 귀가 무면허 운전 들릴까...광주 도심 광란의 질주

광주·전남도 감염증상 없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진자 발생 24시간째인 12일 의심환자들이 바이러스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광주·전남지역 밀접접촉자 1명을 비롯해 일상접촉자 15명도 현재까지 감염증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질병관리본부 등에 따르면, 쿠웨이트 출장에서 돌아온 후 메르스 확진을 받은 A(61·서울)씨의 접촉자 가운데 이날까지 고열, 기침, 가래 등의 메르스 증상을 보여 '의심환자'로 분류된 10명 모두 메르스 확진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돼 귀가했다.

이들은 밀접접촉자 1명, 일상접촉자 9명으로,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잠복기 동안에는 당국의 관리를 받는다. A씨의 상태도 안정적이다. A씨가 입원한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입원할 때부터 산소 부족이나 혈압 저하 등의 증상으로 불만만 증상이 없었고, 현재 일부 증상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광주시, 전남도는 밀접접촉자, 일상접촉자 등 모두 16명에게서 특이 증상이 없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다.

보건당국 집계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밀접접촉자는 21명, 일상접촉자는 435명이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경찰 들이받고 역주행까지 북부경찰, 30대 영장 신청

광주북부경찰청은 12일 신호위반 단속 경찰을 치고 달아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김모(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1일 오전 9시50분께 광주시 북구 유동의 한 도로에서 신호 위반 후 정차를 요구하는 경찰관을 자신의 SM5 차량으로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경찰관은 급히 피하며 전치 2주의 부상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추적을 피해 역주행,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을 일삼으며 자신의 거주지인 서구 광천동 방면으로 10km 이상 차량을 몰고 도주했다.

당시 경찰은 2차 사고를 우려해 추적을 멈췄으며, 이 과정에서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김씨는 차량 번호 조회를 통해 경찰이 연락하자 자진출석하며 붙잡혔다.

김씨는 경찰에서 "지난해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무면허 운전 사실이 들릴까봐 도주했다"고 진술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주지스님 방에서 필로폰 투약...여자 승려 징역형

○-전북의 한 사찰 내 주지스님 방에서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60대 여자 승려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12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이재환 판사)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승려 A(여·60)씨는 2016년 12월과 올해 3월 전복 한 사찰 내 주지스님 방에서 2차례 필로폰 0.1g을 투약했다는 것.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조울증과 우울증 등으로 힘든 상황에서 필로폰을 투약했고, 다시는 이런 범행을 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회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는데 그치지 않은데다, 정식 등록된 승려는 아니지만 높은 도덕적 소양을 갖춰야 할 종교인으로서 마약류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 "과거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2019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 / 대학원 신입생 모집

학 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단위	수시	정시
인문	신 학 과	30	16
	한국어교육학과	3	1
사범	유아교육과	8	2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교정행교육상담학 전공)	31	3
예능	음 악 학 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23	7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교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수시모집 · 원서접수 : 2018. 9. 10(월) ~ 14(금) · 전형일 : 2018. 9. 28(금)

정시모집 · 원서접수 : 2018. 12. 29(토) ~ 2019. 1. 3(목) · 전형일 : 2019. 1. 10(목)

대 학 원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 학 원	과 정	모 집 학 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65
		신학과(Ph.D.)	6
		목회학과(D.Min.)	2
		유아교육학과(D.Ed.)	5
		사회복지학과(D.S.W.)	5
일반대학원	박사	상담심리치료학과(D.C.S.)	5
		코칭심리학과(D.Psy.)	5
		통합예술통계학과(D.C.S.)	15
		통합예술통계학과(D.C.S.)	10
		신학과(Th.M.)	25
	석사	유아교육학과(M.Ed.)	8
		상담심리치료학과(M.A.)	15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10
		사회복지학과(M.S.W.)	20
		평생교육학과(M.Ed.)	10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Ed.)	20
		음악학과(M.A.)	6
음악대학원	석사	실용음악학과(M.A.)	6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 추후 공지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임학문의 ▶ 학부 062) 605-1114 / 대학원 062) 605-1115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로 36